

40% 돌파 '하나뿐인 내편', 욕하면서 보는 스토리의 힘



흡인력있는 스토리에 입소문까지 더해져

'하나뿐인 내편'이 시청률 40%를 돌파했다.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이 시청률 41.8%(전국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종영한 '황금빛 내 인생' 이후 약 10개월 만에 보는 수치다. '황금빛 내 인생'은 2017년 12월 처음으로 40%를 넘긴 이후 3월 방송한 최종회에서 45.1%를 기록하며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바 있다. '하나뿐인 내편'은 방송에 앞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부터 KBS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대할 만큼 배우들과 제작진의 자신감이 넘쳤던 작품. 첫회부터 24.3%를 기록하며 좋은 스타트를 보이더니, 이후 계속된 상승세로 30% 후반을 지키며 40%의

목전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12월 31일 진행된 KBS 연기대상에서 MC를 맡은 유이(이유)를 비롯해 상을 수상한 '하나뿐인 내편' 배우들은 마의 '40%' 벽을 넘고 싶다는 의지를 말하며 "조금만 더 도와 주시면 40%가 넘을 것 같다", "40%가 넘는 것 보다 끝까지 좋은 드라마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내심 기대를 내비쳤다. 막연한 기대와 자신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뿐인 내편'은 흡인력있는 스토리로 한번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을 자랑했고, 여기에 입소문까지 더해지며 결국 70회에서 41.8%를 기록한 것. 2018 KBS 연기대상에서 작가상을 수상한 김사경 작가의 필력은 시청자를 브라운관 앞에 붙들어 두기에

충분했다. 김수일(최수종 분)과 김도란(유이)의 애틋한 부성애와 이를 오은영(차화연)에게 감춰야 하는 데서 오는 긴장감, 그리고 장다애(윤진)와 소양자(임예진)의 틈새지기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느 연령대의 시청자가 언제 유입되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개된 것도 시청률 상승에 한 몫을 더했다. 모두가 응원하고 모두가 미워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기에 함께 울고 웃고 또 욕을 하면서 공통의 주제가 없는 세대간에도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주중 드라마에서는 10%만 넘어도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주말드라마지만 여전히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파워 드라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드라마는 시청자가 찾아서 본다는 말을 입증한다.

'아모르파티' 1기 종료, 5060 시청자 공감



은 뭘까. 사랑하는 우리 지음 이쨌죠?"라며 여행지에서라도 아들 허지용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청아의 아버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며 크루즈에서처럼 경쾌하고 흥겹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초반 수줍은 모습이었던 허지용의 아버지는 여행 안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였고, 아들마저 깜짝 놀랄 대박하고 귀여운 행동들을 해서 신을 사로잡은 바 있다. 허지용은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샷에서 자신을 향한 편지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배운정의 어머니는 "내 인생은 '아모르파티' 진후로 나간다"라며 뜻깊은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아모르파티'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가는 스타들을 홀로 키워낸 홀어머니, 홀아버지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 싱긋의 황혼들이 모여 청춘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최근 젊은 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배적인 방송사의 예능 분위기 속에서 '아모르파티'는 화제성은 낮을 수 있으나 의외의 재미와 목직함 감동을 선사하며 새로운 시청률 27%에 대한 기대감을 열었다.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와 여행을 생각하게 하는 포문을 열었고 시니어들에게는 공감과 재미를 안기며 훈훈한 프로그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한편 '아모르파티'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40분 방송된다.

'뽕반', 30일 개봉...설 연휴 흥행 노린다

영화 '뽕반'이 설 극장가를 겨냥한 개봉일을 확정했다. 14일 투자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뽕반'은 오는 1월 30일 개봉을 확정했다. 오후 6시 이후 관람료가 50% 할인되는 문화의 날인 데다가 2월 3일부터 연휴에 돌입하는 2019년 설을 겨냥한 길일이다. '뽕반'은 통제불능 스피드광 사입가를 쫓는 뽕소니 전담반 '뽕반'의 고군분투 활약을 그린 범죄액션 영화다. 뽕소니만을 다루는 경찰 내 조직인 뽕소니 전담반 '뽕반'이라는 참신한 소재와 공효진, 류준열, 조정석을 비롯 열정아, 전혜진, 손석구, 사이니 키(김기범)까지 아우르는 신선한 캐스팅 조합, 그리고 짜릿한 카 액션과 긴박감 넘치는 전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쇼박스는 지난해 12월 개봉한 150억 대작 '박약왕'이 손익분기점

달성에 실패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뽕반'으로 2019년 포문을 여는 만큼 흥행이 간절하다. '뽕반'은 2015년 '차이내터운'으로 주목받은 한준희 감독의 신작이다. '카트', '1987'로 각광받은 김경찬 작가 초고를 바탕으로 김경찬, 한준희 감독이 공동 집필했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예고편은 나쁜 놈 잡으러다 뽕소니 전담반으로 좌천된 엘리트 경찰 '은시연'(공효진 분)의 모습으로 시작부터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기대케 한다. 남다른 카리스마를 지닌 만사의 뽕반 리더 '우선영 계장'(전혜진 분)과의 만남에 이어 뛰어난 본능과 차에 대한 감각으로 범인을 잡는 뽕반의 에이시 순경 '서민재'(류준열 분)의 모습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이들이 한 팀이 되어 펼칠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또한 위험한 레이싱에 목숨 거는 통제불능 스피드광 '정재철'(조정석 분)의 모습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가 불러일으킬 예측불가의 사건을 예고한다. 여기에 '재철'의 주위에서 점차 수사망을 좁혀오는 뽕소니 전담반의 거칠 거친 탐몰레는 "이제부터 시작이지"라는 '시연'의 대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추격전이 신사할 짜릿한 쾌감을 전한다. 뽕소니 전담반은 물론 자신만의 신념을 지닌 내사과 '윤지현 과장' 역의 열정아와 비공식 뽕소니 전문가 '정재' 역의 이성민까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출동한 이들의 모습은 속도감 넘치는 카 액션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를 시선을 사로잡는다.

'너목보6' 이상민·박준형·김상혁·장도연·딘딘, 고정 패널



'너목보6'에서 빠져선 안 될 막강 패널 군단이 돌아온다. 오는 18일 저녁 7시30분 첫 방송되는 Mnet 새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6'(이하 너목보6)에는 감초 역할을 하는 패널 군단이 있다. 이들은 '음치 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초대

를 보는 재미에 맛을 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너목보6'의 첫 방송에는 스페셜 패널로 가수 치타, 안무가 제이블랙, 배우 김민규가 출연해 시작을 함께 빛낼 예정이다. 특히 시즌4에서 미스터리 심어로 출연했던 김민규가 이번에는 패널로 출연해 관심이 쏠린다. 치타, 제이블랙 역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이처럼 '너목보6'의 개성만점 패널들은 미스터리 심어들의 무대에 중심으로 환호하고 함께 공감하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맛깔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에선 더욱 화려한 패널 군단과 함께 아낌없는 추리와 리액션을 던진다고 해 시청자들의 분방시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음력 12월 10일)

<p>▶ 쥐띠 꿀벌이 온갖 꽃에서 꿀을 빨아 모으듯 1, 3, 5, 11월생은 토끼, 닭, 말띠의 마음 안에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점을 본받도록 하라. 미혼자는 서, 남간에 있는 사람이 당신 인연이니 그, 비, 자 성씨가 있으면 한번 만나볼 것. 외출은 조심함이 좋겠다.</p>	<p>▶ 용띠 그, 자, 천 성씨는 혼자서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려고 하니 상대가 떠나는 격. 1, 8, 9월생은 부린 만큼 거둔다는 것을 음미해보라. 무엇이든 쉽게 빨리 얻으려면 힘겨울 수 있다.</p>	<p>▶ 원숭이띠 일주일동안 쌓인 피로를 잠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등산계획이나 레저 스포츠로 푸는 게 좋겠다. 4, 9, 12월생은 수면을 적당히 취해야 한다.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할 것. 1, 2, 3월생은 다된 밥에 재 부리는 격이니 남쪽을 피하라.</p>
<p>▶ 돼지띠 2, 7, 10월생 운기가 상승하니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준비할 시기다. 모처럼 먼 곳으로의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머리로 식힐 겸 동쪽으로 떠나보라. 해답을 얻어 올 것이다. 만사 신중하게 한다면 평온무사한 날.</p>	<p>▶ 황소띠 허황된 생각으로 시간낭비하지 말고 4, 11, 12월생은 빨리 제자리 찾아 안주하라. 비, 사, 오 성씨는 노력으로 자신을 빛내야 한다. 남을 돕고 한순간에 일어선다는 안이한 생각은 접어두어라.</p>	<p>▶ 양띠 우정, 특히 그중에도 이성과의 우정을 맺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록 처음에는 미덕에서라는 동기로 시작해도 1, 2, 7, 11월생은 나중에 큰 손해에 원인이 되겠으니 주의하도록 할 것. 비, 오, 자, 흥 성씨는 침착, 냉정하라. 동쪽이 길함.</p>
<p>▶ 호랑이띠 무리한 일인지 알고도 떠맡는 것은 위험하다. 1, 2, 7, 11월생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면 일에서 실패할 염려 있으니 주의할 것. 그, 비, 오, 자 성씨는 분위기에 휩쓸려 억지로 일하게 되면 결국 입장만 난처해지니 가려서 받아들여라.</p>	<p>▶ 말띠 전진 자세가 갖춰지고 한걸음 나가는 기운. 5, 7, 10, 12월생은 너무 강한 행동을 보이지 말라. 그, 오, 자 성씨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할 것. 구설수 따르게 되니 문제가 생기면 동남쪽 사람과 상의함이 좋겠다.</p>	<p>▶ 닭띠 당신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마음을 비우고 사랑에서 벗어날 것. 1, 5, 9, 10월생은 당분간 마음은 아프겠지만 더 이상 밀려나지 않도록 물 붓지 말고 새로운 독에 자신의 물을 채워 가라. 차차 마음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함이 좋을 듯.</p>
<p>▶ 토끼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일은 서둘러 정하라. 1, 3, 10월생은 일의 매듭이 어려워도 힘을 다하면 풀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때 운이 열린다. 그, 비, 사, 오 성씨는 제자리걸음으로 성과를 놓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것.</p>	<p>▶ 양띠 그, 오, 흥 성씨는 소심한 성격은 바꿔 보는 것도 좋겠다. 사업에 큰 도움이 되어 아래사람 거느리는데 장점으로 부각됨을 알 것. 5, 10월생 교육자, 학원관계업자는 지나친 과로로 건강 이상이 있으니 검진을 받아보고 휴일에 충분히 쉬도록 하라.</p>	<p>▶ 돼지띠 그, 오, 흥 성씨는 모든 일은 출발이 중요하니 새로운 각오로 임할 때 양, 범, 뱀띠의 도움을 받는다. 2, 4, 8월생은 꾸준히 연구할 때 명예 지킬 수 있으니 창작, 예술, 교육계 등 중직자는 안전한 태도를 멀리하라. 오늘은 바닷가보다는 등산이 좋은 날.</p>